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교육 사이의 이질감

정 상 욱 | 전남대 응용화학부 학생

옛그제 대학 새내기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되어 대학 문을 나서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을 자랑하는 우리 경제 현실을 보면 대학 문을 나간다는 것이 불안하기만 하다. 작년에 취업을 위해 분주히 뛰어 다녔지만 번번이 불합격의 고베를 마시며 어깨가 처진 채 도서관에 있는 선배를 보면서 우리 취업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이 나에게도 똑같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두려운 생각까지 든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바라는 점은 뚜렷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년 구직 활동을 하는 선배들을 통해서 듣고 느낀 점을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구직 정보, 어떤 곳에 지원해야 될까?

요즘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책상에 앉아서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취업 공고나 뉴스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옛날처럼 뛰어 다니며 취업 정보나 추천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구

직 정보 속에서 어떤 곳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내가 아는 취업 사이트만도 4개, 하루하루 각 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는 아무런 정보도 습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무심코 스쳐버린 정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크나큰 낭패가 아닌가.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가이드나 상담원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걱정거리도 줄어들고 혼란도 다소 안정이 될 것이며 시간의 효율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II. 전문적인 취업 관련 훈련 장소와 적극적인 취업지도가 필요

두 번째로 취업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면접에 관한 사항이나 적성검사 등은 취업 준비생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면접 능력 등은 이론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는 사전 훈련을 통한 많은 리허설이 필요하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면접 자세와 기법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면접 훈련과 인·적성검사도 자주

“

지방대생들은 수도권 대학생들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정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대생들의 특징으로 소극성을 들 수 있는데,
자신의 일이지만 먼저 다가가서 준비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런 지방대생들의 현실적인 마인드를 이해하고 좀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부끄러운 부탁이기도 한다.

”

실시되었으면 한다.

지방대생들은 수도권 대학생들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정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취업 전선에 뛰어 들기도 전에 수도권 대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주눅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취업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취업준비 자세 등을 배운다면 좀더 각성된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취업 문제는 각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준비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대생들의 특징으로 소극성을 들 수 있는데, 자신의 일이지만 먼저 다가가서 준비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지방대생인 본인으로서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런 지방대생들의 현실적인 마인드를 이해하고 좀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부끄러운 부탁이기도 한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용기가 없어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들까지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바란다.

Ⅲ. 직무와 관련된 연계 교과목 개설이나 전문자격증 강좌 개설

요즘 기업체에선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중심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이 사전교육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바로 현장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학도 이와 같은 각 기업체의 채용 패턴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대나 약대 등의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들 대다수가 대학 졸업 후 사전교육 없이는 바로 현장에 뛰어 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전문 IT 분야나 금융업종 등에 취직하기 위해선 또 다시 백만 원 상당의 수강비를 내고 전문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 자격증 한 두 개는 취업을 위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사항으로 되어 있다. 예전의 '특수'가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버린 현실을 생각할 때, 방학 중에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좌를 설치하는 것이 꼭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학교가 취업을 위한 장소가 아닌 순수학문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졸업 후의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할 일이 아닐까 한다.

Ⅳ.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하루에도 약 300개 정도의 구인 광고를 책상 앞에 앉아서 볼 수 있다고도 취업 전문기관이 보도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면 한 번에 여러 기업체의 서류 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을 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생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이상 수업을 결시해야 된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취업활동을 위한 결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전문기관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취업 현실에선 학생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Ⅴ. 취업 스트레스 해결

소수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류전형, 면접에서 떨어지고 좌절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취업에 실패한 대다수가 친구들,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따가운 시선과 질책이 두렵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건디기 힘들 때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카운슬러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는 위로나 격려보다는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더욱 효과적일 때도 있다. 그리고 취업에 한두 번 실패하는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의 욕구를 되찾지 못한다는 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나 학생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감싸며 도와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교가 취업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또 이제는 순수학문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약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이 공부의 주목적은 아니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자신감과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자기발전에 대한 노력은 위에 언급한 이야기보다 당연히 앞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끊임없는 개발은 학벌 차이에 대한 극복도 가능하게 만들 것임을 강하게 확신하는 바이다. 